

지역 소식통



부안군,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부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간담회를 공공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현구 민간위원장을 비롯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과 복지사업과 발굴, 민간지원 연계 등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성공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현 공공위원장은 “앞으로 도·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늘면서 논하는
조직문화 논크숍 개최

고창군이 지난 15일 수평적 소통문화 확산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저연차 공직자가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work-shop)이라는 이름 대신 논크숍(non work-shop)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날만큼은 업무에서 벗어나 군수와 직원이 격의없는 소통에 집중했다.

저연차 공직자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군수님 질문 있습니다!(공감 토크) △군수님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퀴즈 △세대 공감 e-게임 등 전 세대가 즐겁게 공감하고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이학수 시장, 관광·문화 핵심사업 현장점검… “만족하고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정읍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체류형 관광·문화 핵심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최종 점검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6일 △메이플랜드 익스트림 놀이시설 △월영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한국가요촌 달하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 준비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먼저 메이플랜드 익스트림 놀이시설을 찾아 공정 추진 상황과 운영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메이플랜드 익스트림 놀이시설은 어드벤처타워와 스카이버이크, 네트형 놀이시설 등 3종의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준공과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운영 전 마지막 점검인 만큼 시설별 안전성과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운영 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이용객 동선과 편의시설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조성된 월영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인도고 설치 상태와 이용 환경을 점검했다.

월영고 인도고는 메이플랜드(가적의 놀이터, 천사하어로즈, 순환열차 등)와 배후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관광객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장은 재개관을 하루 앞둔 만큼



새롭게 단장한 전시관과 체험 콘텐츠, 편의시설 등을 최종 점검하고, 시설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시관과 음악놀이터, 카페, 야외정원 등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콘텐츠 발굴과 운영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준비 계획을 점검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정읍농악과 수전출, 약기장, 자수장, 전통주 등 지역 무형유산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거점시설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

고 있다.

이 시장은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준공 이후에는 무형유산 보유자와 시민, 관광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설은 준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면담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권역 주요 현안 건의·국회 방문해 지원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5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부안권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권 군수는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반영 △3권역 관광레저용지의 농생명용지 편입 제외 및 복합개발용지 전환 △3권역 전략적 유보지의 개발계획 반영 및 복합개발용지 전환 등 3가지 핵심건의사항을 설명했다.

권 군수는 “부안권역은 이미 매립이 완료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등을 갖춘 새만금의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시설용지를 반영해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산업시설용지 확충에 대비해 전략적 유보지의 선제적인 개발계획을 반

영함으로써 기업투자와 민간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 군수는 국회로 이동해 부안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병선 최고위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 면담에서는 △새만금 부안권역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도 30호선 변산~진서~보안 구간 개량 등 부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권 군수는 각 사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위해 최선”

고창군, 국민신문고·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고창군이 지난 15일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에 도움을 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상은 두 분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나뉜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5명씩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을 제공했다.

‘국민신문고 분야’는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의 민원요지 파악, 성실한 답변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 이도연(환경위생과), 우수 박홍지(도시디자인과)·김재건(세계유산과), 장려 김민영(사

회복지과)·이승연(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이 선발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법정 민원에 대해서 단축 일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오성현(환경위생과), 우수 차지혜(사회복지과)·임지선(인재양성과), 장려 최병근(신활력경제정책관·허규진(사회복지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더 큰 도약 위해 최선”

방상운 신임 부안 부군수 취임

지난 16일 방상운 부안군 부군수가 취임했다.

방상운 부군수는 지난 1996년 군산시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과 국가예산팀장, 자치행정과장, 예산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6년 1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지낸 뒤 부안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방상운 부군수는 “부안군의 발전과 군



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영 전 부군수는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명예로운 퇴임을 맞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농업, 경험에 자료 더한다… 스마트팜 기술 교육생 20명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능형 농업(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자료 기반 영농을 실천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팜 전문기술 교육 교육생 20명 안팎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읍·면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농업인상담소, 동 지역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예비 창업농이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거나 기존 시설원에 농가 가운데 지능형 농장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8월 6일~10월 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총 8차례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